



새로운 농구가 시작된다" ONE HOOP 농구리그 미디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2023 MG새마을금고보철 ONE HOOP 농구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참석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MG새마을금고보철이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ONE HOOP 농구리그는 기존 하프코트 농구의 3on3 경기와 2on2, 1on1 경기로 구성됐으며 오는 23일 파주 명필름 아트센터 특설코트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를 MG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시스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화 봉송주자 모집

전남도 22개 시·군 접수...147구간 973.63km



주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주자로 선발되면 단체복·운동화 등 용품과 활동비가 지급되며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총 973.63km를 달리게 된다.

봉송 구간 거리 973.63km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횟수 104와 43을 더한 147개 구간의 총 구간 길이이다. 성화 채화 장소와 최종 봉송구간 계획도 확정했다.

성화 채화는 특별채화와 공식채화로 구분해 추진된다. 오는 9월 해남 팽팔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에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을 상징하는 특별채화 행사를 개최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의 저력과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10월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시 일대에서 각각 채화한 전국체전 성화와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는 전남도청에 안치하고, 10월 10일 특별채화와 공식채화한 성화의 합화식 후 도내 22개 시·군을 4일간 순회한다. 순회를 마친 성화는 10월 13일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성화봉송 주자가 되는 것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생일대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힐 성화 봉송 일정과 구간을 확정, 주자를 모집한다. 전남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성화 봉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체전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7월5일까지 해당 시·군 체육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통해 총 685명의 주자를 선발한다. 도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되도록 지역을 대표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 외에도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황선홍호 '상처만 남은 중국 평가전'

1승1패...엄원상·조영욱 등 부상자 속출
현지 적응 노렸지만 되레 잃은 게 많은 꼴



15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대표팀 친선경기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제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황선홍호 24세 이하(U-20) 남자축구 대표팀의 중국 원정 평가전은 오히려 득보다실이 더 많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4 대표팀은 지난 19일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0-1로 졌다.

지난 15일 중국과 1차전에서 3-1로 승리했던 한국은 이번 중국 2연전에서 1승1패로 마쳤다.

2014년 인천 대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은 6월 A매치 기간 중국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계획했다.

중국이 전력상 최상의 스파링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현지 환경에 미리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두 차례 평가전이 열린 진화 스타디움은 황제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경기장 중 하나다.

황선홍호 최고 스타인 이강민(마요르카)이 같은 기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에 소집됐지만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확정 전 마지막 욕석을 가리고 선수 간에 호흡을 맞춰볼 기회이기도 했다.

황 감독도 이번 중국 원정에 총 26명을 데려가 1, 2차전 선발 명단을

다르게 꾸리며 실전에 무게를 뒀다. 또 후반에 선수를 대거 교체하면서 여러 선수를 점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뛰어넘은 경기 내용이었다. 안방에서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1, 2차전 모두 거친 플레이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결국 부상자가 속출해 향후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1차전에서 교체로 나와 멀티골을 터트린 공격수 엄원상(울산)이 상대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꺾이는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교체된 뒤 조기 귀국했다. 2차전에서는 선발로 나선 공격수 조영욱(김천)이 상대 선수와 충돌해 어깨를 다쳐 전반 20분 만에 박재용(인양)으로 교체됐다.

또 후반 10분쯤에는 미드필더 고

영준(포항)까지 상대 선수에게 끌려 다리를 짚으며 그라운드를 나와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우영(프라이부르크), 고재현(대구) 등도 중국의 '소림축구'에 다칠 뻔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와 전술을 점검하는 평가전이었는데도 중국은 본 대회를 치르는 것 같은 거친 플레이로 친선경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황 감독은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현지 기후나 날씨, 아시안게임 본선에서의 경기나 상황에 대해 적응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축구에서 시간 지연이나 거친 플레이, 수비적인 상황 등은 나올 수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나올 수 있기에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상자가 많이 생기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큰 부상이 아니었다면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황선홍호의 중국 원정은 상처만 남은 꼴이 됐다.

1차전은 승리로 자존심을 쟁겼지만 2차전은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당황해 무득점 패배까지 기록했다.

평가전이라곤 하지만 중국에 결과까지 내주면서 아시안게임을 향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뉴스시스

고진영 158주 세계랭킹 1위 LPGA 역대 최장 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58주 동안 세계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던 고진영이 '레전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고진영은 2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다.

통산 158주 동안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이는 오초아가 작성한 역대 LPGA 투어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 타이 기록이다.

고진영이 앞으로 한 번 더 1위를 지킬 경우,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고진영은 오랫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키다가 서서히 순위가 떨어져 5위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23일 1위로 복귀 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교부, 손준호 中 구금에 "인권침해 없어...영사 면담 예정"

"공정한 수사 되도록 입장 전해"...구속 장기화 가능성

중국 공안당국이 형사 구류(임시구속) 기한이 만료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산둥 타이산 소속 손준호 선수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외교부는 구금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 선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은 중국 측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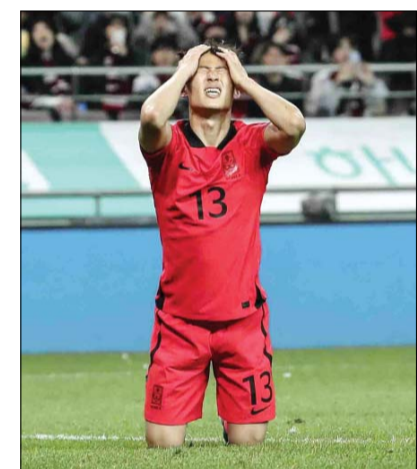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중국 측에게 우

리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손준호가 중국 측에 의해 구금된 이래 지금까지 현지 공관 직원 이 영사 면담을 세 차례 가졌고, 앞으로도 조만간 영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손준호와 가족간 연락을 포함해 복용하는 약이나 음식물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교부와 축구협회 등이 손준호 선수 측을 접촉했으나,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구제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상황을 자체히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 중국 공안은 우리 형사법 체계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37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검찰 구속 수사도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프FIT [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